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고사명 - 2015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학년	과목명	실시일	출제교사
(2)학년	(국어)	2015. 4 . 30 (목)	김새론, 안주연

문항 번호	정답	해 설
1	㉔	시적화자는 소설 속 ‘서술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시적화자는 시인과 항상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2	㉔	(가)시에는 ‘나’가 존재하므로, 시적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3	㉕	(가)시는 시적화자가 마구 달려가는 동적인 움직임과 너에 대한 사랑이라는 변치 않는 정적인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4	㉑	시적화자가 이중섭 가족에 대해 느끼고 있는 정서는 ‘안타까움’이다. 이것이 잘 드러난 부분은 시의 마지막 부분이다.
5	㉕	<동백꽃>은 1930년대 봄을 배경으로 하여, 산골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의 현대소설이다. 인물 간의 사투리를 사용한 대화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6	㉓	문학작품에 의도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여, 오히려 실감나고 현장감이 두드러지는 효과가 드러난다.
7	㉑	해학성이란 익살스럽고 웃음을 자아내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마름의 딸인 점순이와 나의 관계를 우려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해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농촌의 빈부격차로 인한 현실성을 반영한 부분이다.
8	㉔	닭싸움은 점순이의 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지, 내가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다.
9	㉕	세 가지 모두 배경의 역할이다.
10	㉑	민수는 할아버지와 의 대화에서 관계 중심적이고 정보 중심적인 대화방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11	㉓	시적화자는 ‘당신’의 무심함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의지를 간절한 여성적인 어조와 경어체, 은유법을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	㉓	<보기>의 관점은 작가를 고려한 표현론적 관점이다. 이와 일치하는 관점의 해석은 3번이다.
13	㉔	(가)는 3음보의 서정시이고, (나)~(라)는 (가) 시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평한 비평문이다.
14	㉔	(가)의 ‘길은 삼백리’는 나그네와 목적지 사이의 정서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15	㉔	윗글은 5연에서 호흡이 빠른 산문적 리듬을 사용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시키며, 10연의 ‘그러나’를 통해 희망적 미래로 시상을 전환한다.
16	㉔	윗글의 ‘벌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1	관, 석회질	이중섭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소재는 죽음을 의미하는 ‘관’과 금방 굳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성질의 ‘석회질’이다.
2	반영론적 관점, 총소리도~못했다. (꿈속에서나~못했다.)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한 관점은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림에는 공포와 불안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부분은 ‘총소리도~못했다.(=꿈속에서나~못했다)’이다.
3	1. 향토적, 서정적 분위기 형성 2. ‘나’와 ‘점순’의 화해와 사랑을 상징	‘동백꽃’이라는 소재가 작품 속에서 하는 역할은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과 주인공들의 화해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
4	역순행적 구성방식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뒤바뀌어 전개되는 구성방식을 ‘역순행적 구성방식’이라 한다.
5	①은 1인칭 관찰자 시점 ②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③은 전지적 작가 시점 ④는 1인칭 주인공 시점 ⑤는 전지적 작가 시점	1은 서술자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시점이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2는 서술자가 소설 밖에 존재하며 가장 객관적인 입장이므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3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알고 있으므로 전지전능한 서술자,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4는 서술자=주인공=‘나’ 이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5.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의 입장이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6	수미상관, 기승전결	이 시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특징은 앞과 뒤가 유사한 구성인 ‘수미상관’과 일정한 이야기 전개 방식을 드러내는 ‘기승전결’이다.
7	작가가 남긴 말, 시대 상황 비평가들의 해석	시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윗글에 제시된 시 해석의 근거는 작가가 남긴 말, 시대 상황, 비평가들의 해석을 찾을 수 있다.
8	㉠ 길은 외출기 ㉡ 체념과 달관의 정신	‘나그네’ 시에서 나그네는 강 저쪽의 삶과 작별한 사람인데 그 근거가 되는 시구는 ‘길은 외출기’라는 부분이다. 또한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시구는 세상을 버린 자의 애달프게 맑은 정신이라는 시인의 말을 근거로 할 때 ‘체념과 달관의 정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